

보도시점

배포즉시

배포

2026.8.2.(일)

미국 주 정부 대상 아웃리치로 한미 전략적 협력 외연 확대

- 통상교섭본부장, 전미주지사협회 하계회의 참석 계기 美 11개 주 주지사 연쇄 면담 -
- 대미투자, 원전 등 한미 간 협력 기회 모색 및 주 정부 차원의 지원 당부 -
- 美 업계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파트너십 재확인 -

산업통상부(장관 김정관)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7.30(목)부터 8.1(토)(美 현지시간 기준)까지 미국 오클라호마시티에서 개최된 2026년도 전미주지사협회(NGA) 하계회의에 참석하여 미국 전역에서 온 주지사 등 주요인사와 업계 등과 면담을 갖고 한미 산업·통상 협력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다.

먼저, 여 본부장은 3일에 걸쳐 11개 주(州)의 주지사*들과 연쇄 면담을 하고, 양국 간 활발한 교역·투자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. 또한, 주별로 우리 기업이 진출한 자동차, 배터리, 에너지, 핵심광물, 조선 등 첨단·전략 산업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현황을 소개하며, 상호호혜적 협력 기회 발굴 및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하였다.

* 빌 리(Bill Lee) 주지사(공화-테네시), 제라드 폴리스(Jared Polis) 주지사(민주-콜로라도), 마크 고든(Mark Gordon) 주지사(공화-와이오밍), 조시 스테인(Josh Stein) 주지사(민주-노스캐롤라이나), 매트 메이어(Matt Meyer) 주지사(민주-델라웨어), 팀 월츠(Tim Walz) 주지사(민주-미네소타), 케빈 스타트(Kevin Stitt) 주지사(공화-오클라호마), 스펜서 콕스(Spencer Cox) 주지사(공화-유타), 웨스 무어(Wes Moore) 주지사(민주-메릴랜드), 래리 로든(Larry Rhoden) 주지사(공화-사우스다코타), 필 스콧(Phil Scott) 주지사(공화-버몬트) 등 11명

특히, 원전과 관련해서는 최근 ‘원자력 전주기 혁신 캠퍼스(NLIC: Nuclear Lifecycle Innovation Campus)’ 후보지로 선정된 주 등을 중심으로 한미 원전협력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하였다. NLIC는 핵연료 전주기 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미국 에너지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, 지난 7월 28일 전체 26개 신청 주

중 △테네시, △오클라호마, △유타, △루이지애나, △아이다호 이상 5개 주가 후보지로 선정되었다. 여 본부장은 이 중 금번 행사에 참석한 테네시, 오클라호마, 유타 주지사와 면담하였으며, 이들 주와는 우라늄 - 원전 건설·운영 - 사용후핵연료 처리 등 원자력 전 주기에 걸쳐 양국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.

한편, 여 본부장은 7.31(금) 행사에 참석한 지나 러몬도(Gina Raimondo) 전 상무장관과 만나 현 대미 통상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, 한미 경제·통상 관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. 특히, 조선과 원전 등 경제안보와 관련이 깊은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한미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.

또한, 여 본부장은 7.30(목) 오클라호마 주 상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여 항공·우주, 바이오, 방산, 금융 등 분야 미측 기업 10여곳과 만나 양국 간 협력 추진 현황이나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고, 폭넓은 분야에서의 협력 잠재력을 평가하며 한국 정부 차원에서 민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적극적 지원 의지를 전달하였다.

여 본부장은 “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활동에 대한 주 정부 차원의 역할이 핵심적”이라고 강조하며, “앞으로도 주 정부 차원에서 bottom-up으로 서로 윈-윈(Win-Win)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·추진해 나가자”라고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	책임자	과 장	구진경 (044-203-5650)
		담당자	사무관	강지민 (044-203-5653)
	원전전략기획관 원전수출진흥과	책임자	과 장	이상은 (044-203-5330)
		담당자	사무관	박환준 (044-203-5336)